

SPORTS “인재 육성 온 힘…발전하는 광주 하키 만들 것”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지역 인재와 꿈나무 육성·발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광주 하키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주하키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찬봉 광주하키협회 회장(정동창호㈜ 대표이사)은 “하키는 비 인기 종목이지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낸 한국의 효자 종목이다. 특히 광주 지역 하키팀은 수많은 남·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한국 하키 발전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종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키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각 11명(엔트리 18명 안에서 수시로 교체 가능)으로 구성된 두 팀이 스틱을 가지고 공을 상대방의 골에 넣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광주에는 하키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박찬봉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월 22일 제3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중학교 때 하키를 처음 접했다. 나주 동강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하키를 시작한 그는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종목에 매력을 느꼈다. 3년간 선수로 활약한 그는 담양공고로 진학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주전으로 출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결국 한계에 부딪힌 그는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하키와의 끈은 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0년 광주하키협회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5년부터는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 기간 그는 종목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먼저 중·고·대 엘리트팀, 생활체육 하키클럽팀 등의 선진 훈련 체계 구축에 매진해 왔다. 지역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에도 몰두하며 인재 육성 시스템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런던올림픽 등 세계스포츠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 주니어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하키 불모지인 광주에서 하키의 대중화 및 기량 향상을 목표로 중학교(송광중)와 고등학교(광주일고·광주여고), 대학부(조선대) 등 4개 팀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박찬봉 광주하키협회 회장

유소년 선수 출신…2010년부터 협회 임원 활동

신축 하키경기장·전국규모대회 추진 등 집중

여중·여대부 창단 등 과제…연계육성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이 열악한 종목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썼다. 하키 선수들은 매년 훈련과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교통비, 숙식 등의 경비를 본인이나 일부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하키팀들의 동·하계훈련 경비와 소년체전·전국체전 참가팀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광주 하키는 지난 2023년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1위, 제42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2위, 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 남녀하키대회 1위, 제104회 전국체전 3위 등 상위 입상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도 2024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3위, 제67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2위, 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 남녀하키대회 1위에 올랐다.

올해 역시 전국춘계남여하키대회 3위, 제23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하키대회 3위 등 전국대회 상위 입상은 물론 진건호·박재원(이상 조선대 3년·1년)이라는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광주 하키는 올해 김영일 제2대 회장이 그간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에 김 전 회장과 하키 협회는 박 회장에게 자리를 이어달라고 권유했다.



박찬봉 광주하키협회 회장은 “하키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낸 한국의 효자 종목이다. 특히 광주 지역 하키팀은 수많은 남·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한국 하키 발전을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종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박 회장은 “유소년 시절 선수로 활동했던 추억에 더해 지역 하키인들의 열렬한 권유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하키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더 나은 하키협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회장 선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박 회장은 지난 1월 22일 치러진 민선 3대 광주시하키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 직격 심사 결과 결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 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아 회장직을 시작했고, 2029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 4년간 광주하키협회를 이끌게 됐다.

박 회장은 먼저 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하키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광주를 홍보하고 상

권에 도움을 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하키협회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연계 육성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광주에는 중학교(송광중), 고등학교(광주일고·광주여고), 대학교(조선대), 생활체육(무등클럽·루키스광) 팀을 보유 중이다.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여자부의 경우 중학교·대학교팀이 없어 육성 체계가 무너져있는 상태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송정중학교에 여자가 있었지만, 급작스런 해체통보로 유명무실해졌다. 여중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여대부의 경우도 송원전문대 등 여러 곳과 팀을 창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시정이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광주에는 실업팀이 없다”며 “하키 인재의 연계 육성을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기장 문제도 심각하다. 광주에는 하키 훈련이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조선대와 평동하키경기장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선수들의 훈련에 어려움이 많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건 조선대 하키경기장의 잔디교체다. 2007년 전국체전 당시 포설돼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선수들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평동하키장이 있지만, 이는 공인 받지 못한 운동장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신축 하키경기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하키팀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하키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종목이다”면서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종목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 앞으로도 광주하키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배드민턴 이승후, 국제대회 ‘금빛 스매시’

바레인대회 SL3 단식 금메달
조나단과 복식서 동메달도

광주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이승후(전대사대 부고 1년)가 두바이 및 바레인에서 열린 장애인 배드민턴국제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이승후는 최근 두바이 장애인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조나단(서울의료원)과 SL3&SL4 종목에 복식조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대회에서 SL3 단식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승후는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 13세에 전남 담양에서 광주 월봉중으로 전학을 온 이승후는 이후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을 오가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해왔다.



처음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승후(왼쪽 두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24 장애인배드민턴 신인선수’로 선발됐고, 올해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 첫 출전에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한층 발전된 기량을 보여준 이승후의 금메달을 축하한다”며 “광주장애

인배드민턴 유망주인 이승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장애인배드민턴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발해 바레인 마나마 대회까지 치른 뒤 20일 입국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2025 대학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광주여자대학교에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 광주여대 운동부 육성지원금 전달

광주시체육회는 ‘2025 대학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광주여자대학교에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대학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육성팀, 선수인원, 대회 성적 등을 고려해 학교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2000년에 창단한 광주여대 양궁팀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우수한 선

수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강 양궁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 창단한 여자 배구, 농구팀은 광주의 열악한 초·중·고 여자팀의 연계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해 여자 대학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이선재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궁과 배구 종목을 육성 중인 광주여대 학교운동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투명·공정한 협회 운영…승마 발전 이뤄낼 것”

최철원 광주승마협회 3대 회장 취임

광주시승마협회 제3대 회장에 최철원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광주시승마협회는 지난 19일 남구 어반브룩 3층 어반리움홀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기장 서구청장을 비롯한 승마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철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승마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건강한 체력, 날카로운 집중력, 그리고 말과의 완전한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과 동물 간의 최고의 협업”이라며 “이처럼 위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승마협회와 광주시체육회가 힘을 모아 승마인 저변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임시 체육, 엘리트 체육까지 동반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2004년 승마와 처음 인연을 맺은 최 회장은 워

스포츠를 통해 광주의 이름을 전국에, 세계 무대에 당당히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승마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염두에 둔 승마장에 평상시 갑상 대기 인원이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블러드와 루시타노를 자마로 두고 해남지구력대회 10km에 출전해 1등, 장애물코스에서 출전해 무감점 완주, 익산 지구력 대회 20km에 출전하는 등 열정적인 승마인의 삶을 살고 있다.

최 회장 체제로 새로 출범한 광주승마협회 집행부는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승마인 60%, 비승마인 40%로 구성됐다.

특히 전국 최초 현역 선수 2명을 집행부에 합류시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최 회장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하겠다”며 “광주승마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와 백제홍삼㈜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2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도체육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백제홍삼㈜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전남체육회 임·직원과 이광자 백제홍삼㈜ 전무이사와 정귀성 고문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을 통해 백제홍삼㈜는 앞으로 2년간 전남도체육회의 공식 음료 후원사로 참여하게 된다.

백제홍삼㈜는 자사 제품인 ‘삼대인 홍삼볼(245ml×24캔)’을 도체육회에 공급하며, 72박스

이상 구매 시 동일 수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조건이다.

도체육회는 해당 제품을 각종 체육 행사와 직장 운동경기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대회 등에 배포해 체육인들의 체력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주는 물론 백제홍삼 브랜드 노출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며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 회장은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백제홍삼㈜과의 이번 협약이 전남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